

'클래식 기타 히어로'의 바흐 선율



클래식 기타리스트 밀로쉬 카리다글리치를 초청한 '이건 음악회'가 오는 24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이건창호 제공>

'이건 음악회'는 해마다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를 초대해 서울 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 공연을 열어 문화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종합건축사제기업 이진이 지난 1990년부터 29년째 진행하고 있는 클래식 연주회 '이건 음악회'가 오는 24일 오후 8시 광주시 서구 쌍촌동 5·18 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린다. 올해 29회 이진음악회가 초청한 음악가는 '클래식 기타 히어로'라 불리는 몬테네그로 출신의 젊은 클래식 기타리스트 밀로쉬 카리다글리치이다.

1983년 내전 중이던 인구 60만 명의 몬테네그로에서 태어난 밀로쉬는 타고난 재능과 감각을 인정받으며 열한 살 때 몬테네그로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열여섯 살 때는 영국왕립음악원에서 거장 마이클 르윈으로부터 기타를 배웠다. 2007년에는 기타리스트 최초로 영국 찰스 왕세자가 수여하는 프린스 프라이어즈 실버 메달을 받기도 했다.

'기타의 목소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밀로쉬의 솔로 연주와 앙상블 연주가 펼쳐진다. 흥승찬 한국예술종합대학 교수의 해설과 함께

'이건 음악회' 초청 밀로쉬 카리다글리치
열한 살 때 몬테네그로 콩쿠르 입상
기타리스트 최초 영국 왕세자 메달
24일 무대... 피호영 바이올린 협연

국내 대표 음악가 7인의 협연을 통해 한층 깊이 있는 선율로 무대를 채운다. 한국 음악계를 이끌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피호영과 류경주, 에르완 리사·유리슬(비올라), 박노을·장하얀(첼로), 손창우(더블 베이스) 등이 참여해 기타와 현악기의 매력을 한 자리에서 선사할 예정이다.

먼저 이탈리아의 작곡가 보케리니의 '현악 5중주 마장조 작품번호 11-5'로 문을 열고 밀로쉬의 바흐 '프렐류드&푸가 가단조 작품번호 997' 솔로 연주가 이어진다. 보케리니의 '기타 5중주 D장조 작품 448 판당고'와 에스파냐의 작곡가 호아킨 로드리고

의 '어느 귀인을 위한 환상곡' 중 '2악장 에스파놀레타',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로 풍성한 선율을 선보인다.

비틀즈로 활동한 조지 해리슨의 '히어 컴즈 더 선'과 존 레논·폴 매카트니의 '더 폴은 더 힐', '엘리너 리키비'로 추억여행을 떠난다. 또 카를로 도메니코 니의 '코윤바비'를 연주하며 터키의 이국적인 감성을 선사한다.

마지막에는 29회 이진 음악회를 기념해 진행한 '아리랑 편곡공모전'에 당선된 김한별, 김성종의 '아리랑 변주곡'을 연주하며 끝을 맺는다.

전국 6개 도시를 돌며 진행되는 이진 음악회는 19일 인천을 시작으로 고양, 광주, 대구, 서울을 거쳐 28일 부산에서 순회 공연을 마친다.

티켓은 15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일보 10층 문화사업국에서 선착순(1인 2매) 무료 배포한다. 티켓을 받은 후 참석 여부를 전화(032-760-0898)로 통보하면 된다. 티켓 배포 문의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25.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네 장으로 구성된 부산국제영화제 공식포스터는 황영성 화백의 '가족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 포스터에 낮익은 작품이

황영성 화백 '가족 이야기' 모티브
배너·홍보차량 등에도 활용

전 세계인의 영화 축제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에 지역 작가 황영성(조선대 미술대학 명예교수) 화백의 작품이 실려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4일 개막해 오는 13일까지 계속되는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의 공식 포스터는 황 화백의 작품 '가족 이야기' (2018)를 모티브로 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올해 공식 포스터는 전쟁으로 잃은 가족을 향한 그리움과 재회의 염원을 그린 작품 '가족 이야기'와 '부산'의 영문자를 대담하게 조합한 4가지 형태로 제작했다"며 "4가지 이미지가 하나로 모였을 때 완성돼 의미가 극대화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단란한 골목을 겪었던 부산국제영화제가,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처럼 다시금 국내외 영화인과 관객을 아우르는 재회의 장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담았다"고 말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 2014년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놓고 부산시와 마찰을 빚으면서 집행위원장 해임, 예산 삭감 등의 골목을 겪었고 이에 반발해 영화인들의 참여도 저조했다.

황 화백의 '가족 이야기' 원화는 공식 포스터 이외에도 부산 시내 곳곳에 내걸린 배너,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홍보차량, 각종 행사가 열리는 무대 배경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조직위측은 지난 5월 서울 현대화랑에서 열린 황영성 초대전 '소의 침묵'전에서 '가족 이야기'를 보고 원화 제공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정찬주 '단군의 아들' 류주현 문학상 수상

보성 출신 나철 선생 일대기 그려

제14회 목사 류주현 문학상에 보성 출신 정찬주 <사진> 소설가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단군의 아들'이며 상금은 1000만원.

류주현 문학상 운영위원회는 정찬주 작가를 14회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류주현 문학상은 '조선총독부', '대원군' 등의 유수한 작품으로 대하소설의 경지를 개척한 목사 류주현(1921~1982) 선생의 문학적 성취를 기리고 문학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수상작 '단군의 아들'은 독립운동의 대부



이자 단군사상의 실천자였던 보성 출신 나철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장편역사소설이다. 정찬주 작가는 나철 선생 일대기를 보성군 홈페이지에 연재해 흥암사상을 알리는데 일조하고, 호남의 지자체에 '의향 재조명'이라는 자

극을 준 것으로 평가받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남농 허건 맥 잇는 박항환 초대전 31일까지 금봉미술관

남농(南農) 허건의 맥을 잇고 있는 한국화가 전정(田丁) 박항환 초대전이 오는 31일까지 금봉미술관 1전시실에서 열린다.

박 작가에게 올해는 고향인 진도 운림산방에 '전정 박항환 미술관'을 개관할 의미있는 해이기도 하다.

17세 때 남농 문화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박 작가는 1967년 국전에 입상한 후 29세 때인 1976년 서울로 상경해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쳤다. 지난 2014년, 38년만에 화맥의 고향 목포로 내려와 그림 그리기에 열중한 그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예총 예술문화상 대상 등

을 수상했다. 현재 대한민국남농미술대전 운영위원장도 맡고 있다.

박 작가는 과거 남중화의 필묵전통을 바탕으로 독특하고 거침없는 운필이 가미된 남도 산수의 세계를 탐구하는 한편 변화하는 시대정신에 따라 다양한 변신을 꾀하며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왔다.이번에 선보이는 30여점의 작품 역시 한국화로는 화려한 색감과 조형미가 다소 파격적이다. 장지에 아크릴을 덧칠하고 수묵을 곁들인 노랑, 빨강, 분홍색 등 다양한 색들이 풍성하게 화폭을 장식한다. 문의 062-269-9883. /김미은 기자 mekim@



'사랑을 여는 바람'

'희로애락' 사진 공모

유·스퀘어 문화관 16일까지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이 16일까지 '제12회 아름다운 유·스퀘어 사진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희로애락'으로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감정을 담은 사진이면 누구든 응모할 수 있다.

최우수 작품 등 입상한 26점은 유·스퀘어 문화

관 2층 유·테라스 야외갤러리에 전시된다. 입상자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CGV영화관람권과 12월까지 공연하는 뮤지컬 '달동네 콤플렉스' 초대권 등이 주어진다.

후대전화 촬영도 가능하며 개인당 5점까지 응모할 수 있다. 유·스퀘어 문화관 홈페이지(usquareculture.co.kr)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은 후, 작성한 신청서를 사진파일과 함께 메일(us_square12@naver.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062-360-8431. /김미은 기자 mekim@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강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OO초등학교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6년무상A/S 정기점검

시공전 시공후

원룸건물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맞춤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 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